

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손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최은영(고려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이방인의 시선과 이분법 해체 |
| 2. 불안정한 이동과 내적 분열 | 5. 소통과 치유로서의 말하기 |
| 3. 망각에 대한 저항과 능동적 기억 | 6. 결론 |

1. 서론

황석영 소설에서 나타나는 당대 현실 반영과, 현실 비판성은 그의 문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황석영은 1970년대 중반 대하장편소설 『장길산』을 집필하면서부터 중단편소설에서 장편소설로 그의 관심을 이동하게 된다. 그는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장길산』을,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을 각각 《한국일보》와 《월간조선》에 연재했다. 1990년대에 황석영은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과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석방 이후에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 『손님』, 『심청』, 『바리데기』, 『개똥바라기별』, 『강남몽』을 발표했다.

2000년대에 발표한 그의 장편소설들은 그의 전작들과 변별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인물이 한반도를 떠나 이동하는 내용이 주요 서사를 이루고 있

* 이 연구는 '2단계 BK21 고려대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비를 받았다.

는 『손님』, 『심청』, 『바리데기』는 기존의 황석영 문학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없는 의미의 잉여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작품 분석을 위하여 세 작품 중 『손님』과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이 두 소설에서 나타나는 디아스포라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씨 뿌리다’라는 그리스어 ‘dia sperien’(a scattering of seeds)에서 유래되었다. 이 용어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알렉산드리아 등지에 살게 된 유대인 공동체, 곧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 이 용어는 1990년대에 들어 이주노동자, 무국적자, 다문화가족, 언어의 혼종성 등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아스포라 문제를 학술화시킨 학자는 사프란(William Safran)이다. 사프란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that segment of people living outside the home land)라고 정의하면서 그 특성을 ‘이산의 역사(a history of dispersal)’, ‘모국에 대한 신화와 기억(Myths and memories about the homeland)’, ‘거주국에서의 소외(Alienation)’, ‘귀국하겠다는 바람(A desire for eventual return)’, ‘모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Ongoing support for the homeland)’, ‘모국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적 정체성(A collective identity shaped by the homeland)’으로 나누어 설명했다.¹⁾

정은경은 디아스포라 문제가 우리나라²⁾뿐 아니라 전 지구적 자본화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디아스포라는 특정 소수 민족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후’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용어를 전 지구적, 전방위적, 전 계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산과 이산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

-
- 1) 윤인진,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 판』 18호, 열림원, 2006, 160면.
 - 2) 외교통상부의 통계에 따르면(2001) 재외한인은 세계 151개국에 약 5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수는 미등록 체류까지 포함하여 6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7면.)

이 기존의 '재외한인 문학'이 환기시키는 단일한 민족성을 추구하는 근대 민족국가주의 체계에서도, 그리고 '미국계 한인작가' '재일조선인 문학' 등이 함의하는 '외국문학' 혹은 '소수민족 문학'이라는 범주화된 카테고리에서도 조금 벗어나는 시도라고 밝힌다.³⁾

재일 조선인 작가 서경식은 디아스포라를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로 인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⁴⁾로 정의한다. 정은경과 서경식은 두 가지 점에서 디아스포라 정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근대 성립의 소산이다. 둘째, 디아스포라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셋째,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산을 강요당한다. 넷째, 디아스포라 문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물이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정은경과 서경식 이 정의한 디아스포라의 정의를 기반으로 논지를 전개해나가되,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단순히 '거대 억압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도식화하지 않고자 한다. 이주민들이 근대 성립이나 세계화로 인해 불안정한 이동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디아스포라 논의는 그들의 정체성을 수동적으로만 규정한 한계가 있다. 본고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는 주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런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손님』과 『바리데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정은경,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2차 국제학술대회, 2007, 197-198면.

4) 서경식,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14면.

2. 불안정한 이동과 내적 분열

『바리데기』의 바리와, 『손님』의 요한 형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 반도를 떠나야 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손님』의 인물들이 미국으로의 이주 이후 미국 시민으로 정착한 것과는 달리, 『바리데기』의 바리는 총 세 번의 불안정한 이동을 경험하고 난민으로 살아간다.

바리의 첫 번째 이동은 바리가 열한 살 때다. 바리의 아버지는 청진에서 인민위원회의 간부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간다. 바리의 외삼촌이 탈북하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바리의 가족은 뿔뿔이 이산(離散)한다. 국가는 바리의 엄마와 고증을 나온 미이 언니, 그리고 중학생들인 정이 숙이 언니를 부령으로 발령 보내지만, 할머니와 어린 바리, 현이 언니의 생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결국 바리는 살기 위해 대동강을 건너 중국의 국경 지방의 한 집을 얻어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의 탈북자 탐색작업으로 인해 바리는 할머니와 현이 언니와 함께 백두산 속으로 들어가 땅굴을 만들고 숨어 지내게 된다. 그곳에서 현이 언니는 동사하고, 할머니는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는다. 바리는 이후에 안마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난 상과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고 한 달 동안의 여행을 시작한다.⁵⁾

밀항선에서 이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며 컨테이너 속에 짐과 함께

5) 오윤호는 탈북자들이 경제적 빈민이며, 정치적 난민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탈북자 문제가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한민족’의 영역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난민’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탈북은 외국으로 이주해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살아가는 통상의 ‘이민’과는 달리, 생명을 담보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찾기 위한 디아스포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는 탈북 디아스포라를 다룬 소설들이 탈북자 자신이 쓴 소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탈북 현상을 일회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문화와 제3세계 난민의 지속적인 디아스포라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10권 1호, 문학과 환경 학회, 2011, 235-255면.)

실린다. 바리는 그곳에서 번호를 잘못 불렀다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여자가 죽는 모습을, 어물칸에서 수장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상자 속에서 숨 막혀 죽은 시체들을 본다. 이 여행은 바리 할머니 혼령의 말처럼 “악머구리 벽작 대구 악령사령이 날뛰는 지옥의 길”(125)이다. 바리는 상 언니가 선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에 자신의 신체가 조각나는 환영을 본다.

검은 옷차림에 얼굴도 짙은 그늘에 가려진 악령들이 내 옷을 벗긴다. 여기서 보면 살덩이는 한줌도 안 되어 보인다. 그들은 칼을 들고 내 몸을 대번에 잘라낸다. 아악, 분리된 넓이 놀라서 한껏 비명을 내지른다. 한껏 비명을 내지른다. 두 팔을 떼고, 두 다리를 떼고, 머리를 떼어 던진다. 그들의 뒷전에도 검은 영들이 무리를 이루어 몰려서 있다. 그들은 떼어낸 사지를 집어던져준다. 요란하게 킬킬대는 웃음소리와 더불어 검은 영들은 내 살을 먹기 시작한다. 몸통을 맡은 영들은 나의 배를 가르고 창자와 간 따위의 내장들을 집어먹는다.⁶⁾

위의 제시문에서 언표로 등장하는 ‘나’는 바리만이 아니라 밀항선에 함께 탄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는 바리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이들의 고통을 타인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해 잘리고 뜯겨져 조각난 신체 이미지는 파괴된 인간 존엄을 보여준다. 『바리데기』에서 나타난 디아스포라는 시민권을 갖지 못한 미등록 거주민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 시민권이 없는 미등록 거주민에게 세계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윤리조차 적용하지 않는다. 바리는 영국에 도착해서 상과 헤어져 마사지 가게에 취직하여 삶을 영위한다.⁷⁾

이 작품에서 디아스포라가 사는 세계는 바리데기 무가의 바리데기가 약물

6)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141면.

7) 바리가 정착한 ‘엘리펀트 앤 케슬’ 지역은 바리와 같은 제삼세계 출신 이민자들의 거주지이다. 바리가 사는 아파트에는 필리핀인, 스리랑카인, 나이지리아인, 그리고 파키스탄인이 살고 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갖고 있다. 추방자의 아내인 스리랑카 여성은 오래된 내전을 피해 영국으로 왔다. 파키스탄인인 압둘은 군인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직후 영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미등록 거주자들로 언제나 추방될 수 있다.

을 찾기 위해 여행하는 서천과 유사하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지만, 그 생계의 터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불안한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갈등의 원인에 아픈 역사가 있음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느낀다. 이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19세기 식민지 국가 출신이다. 그들의 이동은 근본적으로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와 식민지 상황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기인한다. 이 작품은 영국 사회가 그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필요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의 모순을 그려낸다.

『바리데기』의 바리가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손님』의 요한, 요섭 형제는 바리와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미국 이민에 성공한다. 형 요한은 뉴저지의 백인 주택가에 살고, 아우 요섭은 뉴욕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목사로 일한다. 이 소설의 기본 서사는 동생 요섭이 자신이 도망쳐온 고향 북한 신천을 죽은 요한의 영혼과 여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한국 전쟁 당시, 신천에서 사십 구일동안 벌어진 학살사건⁸⁾이 『손님』의 제재이다. 『손님』에서 신천 학살사건은 미군과 중공군의 개입 없이 오로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작은 내전의 성격을 갖는다. 요한은 기독교 청년회의 소속으로 신천 대학살 때 인민위원회 소속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과거를 갖고 있다. 그의 동생 요섭은 학살 사건 당시에 어렸으므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살해당한 사람들의 주검을 기억한다. 요한과 요섭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도망친 고향에 대해 말하기를 회피한다. 요섭이 “그 무렵의 형을 쉽사리 용서”(13)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요한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살육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신을 사랑하는 장로의 지위 사이에서 요한의 자아는 분열한다.

8) 신천학살사건이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그 해 말까지 약 35,000여 명의 신천군 마을주민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강정구, 「종교문화적인 갈등으로 바라본 신천학살사건」, 『외국문학연구』 4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9-10면.)

이 소설은 요섭의 시선과 요한의 시선을 엮어가며 진행된다. 요섭의 시선으로 본 요한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다. 요한은 신천대학살 때 ‘빨갱이 사냥’에 나선 그 젊은 요한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요한은 요한이 죽인 이들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동생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내가 왜 용서를 빌어? 우린 십자군이였다. 빨갱이들은 루시퍼의 새끼들이야. 사탄의 무리들이다. 나는 미가엘 천사와 한편이구 놈들은 계시록의 짐승들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께서 명하시면 나는 마귀들과 싸운다.”

“형님, 성령의 싸움과 인간들끼리 세상에서의 싸움은 다른 겁니다.”

“허튼소리 말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⁹⁾

요한의 직업이 기독교 장로라는 점은, 그가 신천 대학살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요한의 믿음은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들과 대조되면서 그로테스크한 효과를 자아낸다. 그는 회개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앞에서 절대 회개할 줄 모르며, 다른 이들을 살육한 일에 대해서도 ‘주께서 명’하셨기에 따랐을 뿐이라고 고백한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 의식적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소설의 시점이 요섭에서 요한으로 옮겨오면서 요한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허위로 판명된다. 요한은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회한과 불안으로 인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억지로 잊는 것에 성공한 듯 보인다. 그는 요섭이 자신을 찾아와서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다”(17)고 진술하며, “가만있자, 찬샘골이 어디더라”(17)라고 자문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꿈을 깨도 고향의 꿈을 꾸는 요섭과 대비된다. 요한은 의식의 장에서는 고향의 일을 어느 정도 지웠다. 그러나 그의 불안과 죄책감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귀신을 보는 증후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귀신을 맞이하는 요한의 태도에 있다. 그는 자신에 의해 죽은 직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찌로의 귀신을 보며 “나는 그래도 별

9) 황석영, 『손님』, 창비, 2001, 22면.

로 소름이 끼치거나 무섭지는 않았다”(18)거나 자신의 침대 발치계에 모여서 자신을 보고 있는, 자신이 죽인 여자들의 귀신에 대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18)고 이야기할 만큼 당당하다. 그런 그가 자신과 가까웠지만, 결국 제 손으로 죽여 버린 순남이 아저씨 귀신을 마주하고는 “모두 잊어버리고 반가움에 얼른 거실의 불을”(19)켜기도 한다. 그 반가움을 논한 직후에 요한은 “나는 순남이를 그해 겨울에 해치운다. 찬샘골에서 읍내로 나가는 신작로와 농로가 만나는 모퉁이에 서 있던 전봇대에다 그를 철사로 목매달게 된다”(20)고 담담하게 진술한다.

그가 자신이 죽인 혼령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심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그가 심판하는 ‘빨갱이’의 한 명이었던 순남이 아저씨의 영혼을 만나고 참을 수 없는 반가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그에게 행한 과오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말로는 자신이 신의 심판에 가담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행한 살육이 동네 사람들에게 대한 무의미한 학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마저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런 그가 평생을 신의 사랑을 추구하는 기독교 장로라는 사실은 이 소설의 아이러니적 성격을 부여한다. 그런 요한이 죽어 바로 구원되지 못하고 자신이 죽인 이들과 함께 구천을 떠도는 설정은, 그가 전쟁의 기억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신의 본국에 갇혀 버린 디아스포라다.

3. 망각에 대한 저항과 능동적 기억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데 골몰한다.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폐기하는 주류 사회의 습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들에게 과거는 현재와 분명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끝나지 않는 ‘지금’이다.

『바리데기』는 바리라는 탈북자 여성이 자신의 일대기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리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피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기억 일수록 자세히 기술한다. 그녀는 영국에 있으면서도 기억 속의 할머니와 고향을 잊지 않는다. 딸의 죽음이라는 큰 불행을 마주한 그녀가 꾸는 꿈은 그녀의 전 생애이고 아픈 기억의 집합장이다. 바리는 그 길고 긴 꿈속에서 고향의 가족을, 북한의 관리들을, 미이 언니를 매매한 자를, 따렌의 돈놀이꾼들을, 밀항선의 뺨단 사내들을, 포주 아줌마를,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죽인 상을 본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이야기로 불러들이고 과거의 기억을 가감 없이 진술한다.

바리의 기억에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포함된다. 바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키우던 개 칠성이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죽은 할머니와 칠성이와 만난다든지 하는 일들이다. 바리의 기억에서 환상과 꿈은 허상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바리의 기록은 객관과 합리를 지향하는 근대의 매스미디어의 성격과 대조된다. 이 소설은 매스미디어가 과거에 대한 기억과 애도에 반대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바리의 시선을 통해 보여준다. 바리는 말한다.

이듬해 봄에 이라크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코리아에서도 곧 뒤이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뉴스에서 날마다 떠들었다. 나는 어느 날 오래전에 내가 북선에서 겪은 기근을 찍은 기록화면이 방송되는 걸 보았다. 전쟁장면들이나 참경을 찍은 화면들이 나왔지만 내가 무수하게 만났던 혼과 뉘들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보듯이 전쟁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떠들었다.¹⁰⁾

위의 제시문에서 바리는 매스미디어가 전쟁을 하나의 텅 빈 이미지로 생산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진술한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서 바리는 이라크전쟁과 한국 전쟁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뉴스에 대해 진술한다. 그러다 세 번째 줄에서는 북한에서 겪은 기근을 찍은 기록화면에 관한 이야기를 한

10) 황석영, 『바리데기』, 287면.

다. 바리에게 전쟁 상황을 전하거나, 전쟁을 경고하는 뉴스나 과거의 일을 보여주는 ‘기록화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매스미디어는 그녀가 “무수하게 만났던 혼과 뉘”들에 대해서 답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과 기근 아래서 인간이 겪는 비참을 외면하는 미디어는 전쟁을 그저 ‘불꽃놀이’와 같은 스펙터클로 전락시킨다. 바리의 시선은 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려하지 않는 미디어와, 그 미디어가 생산하는 텅 빈 이미지들을 바라보는 공감능력이 소거된 사람들을 향해있다. 이라크 전쟁을 미디어의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풍요로운 사회의 사람들과, 그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염려하는 바리의 마음은 선명하게 대조된다. 바리는 일세계 사람들의 무관심과 침묵이야말로 자신이 겪어야 했던 비참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중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수많은 도시들과 찬란한 불빛들과 넘쳐나는 사람들의 활기를 보면서 이들 모두가 우리를 버렸고 모른 척했다는 섭섭하고 괴씸한 생각이 들었다.¹¹⁾

위의 제시문에서 바리가 말하는 “다른 세상”은 단순히 바리가 살던 신천이나 연변을 벗어난 일세계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그녀는 일세계인 영국에 살면서도 그곳을 “다른 세상”으로 체험한다. “다른 세상”은 그녀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바리데기 무가에서 바리데기 공주가 약물을 얻기 위해 저승으로 여행을 떠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바리데기 공주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저승으로 가지만, 저승은 그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바리데기 무가에서 이승과 저승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를 취한다. 이 소설에서도 일세계 시민들의 평안과 삼세계 미등록 거주민들의 불안은 런던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한다. 바리가 말하는 “다른 세상”은 직접적으로 전쟁이나 기근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방관하는 세상을 말한다. 바리의 원망은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인 남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11) 황석영, 『바리데기』, 93면.

『바리데기』는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분단의 문제를 색다른 각도에서 고찰한다. 바리에게 분단은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거나, 상이한 정치체제간의 갈등만을 뜻하지 않는다. 바리에게 분단 문제는 그토록 풍요로운 세계의 지척에서 굶어죽고 고통 받는 북한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철저한 망각이다. 분단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한 침묵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바리는 그 망각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대기를 기술한다. 그녀의 기억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진술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기억은 망각에 대한 저항이고, 기억을 통한 일세계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손님』은 왜곡되고 은폐된 기억의 문제를 디아스포라의 시선을 통해 제기한다. 이 작품은 신천 학살 사건 당시 열한 살이었던 요섭이 노인이 되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신천 학살 사건의 실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그는 단지 그 당시의 무서웠던 분위기와 형의 호미자루에 죽음을 당한 인민군 누나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희생된 사람들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당시의 사건을 추적할 수 있다. 그는 반공사상에 갇힌 형의 태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지만, 사건을 왜곡해서 새로운 권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거리를 취한다.

요섭은 고향에 와서야 비로소 순수한 기억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는 북한 정권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억 또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섭은 여행 중에 죽은 요한과, 요한에 의해 살해된 순남의 귀신을 만난다. 순남과 요섭은 담담하게 신천 학살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을 말한다. 이 소설은 중심화자가 없이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면서 신천 학살 사건의 발생 이유와 진행과정을 그리고 있다. 공산당 소속 순남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기독교 소속 요한이 뒤를 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여러 명의 화자가 진술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사건은 보다 객관화된다. 작가는 여러 각도의 주관적 진술의 배열을 통해 선조적으로 이어지는 역사 서사를 입체적으로 조립한다.

악몽은 사실이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생생함을 잃어버린 말은 또 얼마나 가벼운가. 수십 수백번 거듭된 말은 마치 타버린 책의 종잇장처럼 검게 일그러져 허공에 떠서 나풀거리고 있었다. 거기 찍혔던 활자와 의미는 재가 되고 먼지가 되어버렸으리라.¹²⁾

요섭이 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곧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재와 먼지”를 “활자와 의미”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요섭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소통을 도와주는 영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망각된 기억들을 불러들여서 산 자들에게 대면시킨다. 요섭이 죽은 요한과 순남을 만나는 장면이 과거의 일을 산 자의 주관에 개입되어있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북한에서 살고 있는 단열과 형수, 삼촌을 만나는 장면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아서 풀어야 할 문제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전쟁의 기억은 결코 놓을 수 없는 한반도 구성원들의 현재이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살아있는 상처이다. 이 작품은 한반도의 구성원들의 그 상처를 극복하지도 못했으면서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4. 이방인의 시선과 이분법 해체

『손님』과 『바리데기』에서 비극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분법적 선악개념이다. 이 두 작품이 문제시하는 것은 ‘의도된 악’이 아니라, ‘절대 선(善)에 대한 믿음’에 있다.

『손님』은 기독교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상호 보복을 그린다. 요한은 전쟁 당시 기독교의 선봉에 서서 신천 학살 사건을 주도했다. 기독교 장로인 그는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을 “십자군”으로, 자신이 죽인 이들을 “사탄의 무리들”로 쉽게 치환하여 이해한

12) 황석영, 『손님』, 108면.

다. 그는 환상 프레임(fantasy frame)¹³⁾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격적 공감을 차단한다. 그의 환상 프레임 안에서 각자의 인격을 가진 개개인은 사라지고, 그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개인은 모두 '사탄'의 탈을 쓴 익명적 존재로 분한다. 요한은 분명한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믿는 인물이다. 전쟁기간 동안 그에게 악은 공산주의였고, 선의 추구는 반공이었다. 반면 공산주의 세력에게 악은 '가진 자'들이었으며, 선의 추구는 소유재산의 균등분배였다. 양 면 모두는 모두 해방의 방법으로 '적의 타도'를 외치지만, 정작 서로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는다. 『손님』은 식민지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서양의 관념이라는 도화선을 만나 폭발하는 과정을 인물들의 심리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묘사를 통해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증오가 파괴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그린다.

상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선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더 악해져야 한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절대 악과 절대 선이 발명된다. 이 작품은 절대 악과 절대 선이라는 이분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요한이나, 우리끼리의 싸움을 '미제의 악랄한 탄압'으로 왜곡해 광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북한정권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 조금 변형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립축인 '절대 악'이 존재하며 그것을 심판해야 한다는 사고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손님』은 절대 악과 절대 선에 대한 믿음과 상대에 대한 심판이 결국 심판을 행하는 개개인을 황폐하게 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상호와 요한이 공산당측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사실 그 살인은 감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동물적인 복수였다. 악을 소탕

13) 지젝은 '환상'이 없이는 현실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때의 '환상'은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프레임, 곧 현실을 보는 관점을 뜻한다. 지젝에 의하면 현실은 그 환상 프레임에 의해서 구성된다. 지젝의 논의는 이데올로기나 거시적인 담론이 일종의 환상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S.Zizec,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승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206-210면.

한다는 명분으로 공산당을 죽이며 “신처럼 전능한 힘”을 느끼는 요한의 기도는 결국 그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자유의 십자군들이 저이 믿음으 형제덜을 해방하려고 지척에 왔으나 사탄의 근대년 아직도 저이럴 위협하고 있음네다. 저이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이 임하사 여호수아랑 다윗에 내려주셨던 지혜와 용기럴 내려주옵소서.¹⁴⁾

사람들을 반공호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이는 요한은 “기어이 계시록에 나온 불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심판에 가담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이면에는 해방 이후 봉건 계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느꼈던 지주 계급의 박탈감과 분노가 있다. 처음에는 분노와 혐오의 감정으로 충을 들었던 그들의 범죄는 결국 말초적인 ‘살인놀이’로 변질되어간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자신과 자기 가족 또한 언젠가는 살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기독교 청년단은 힘을 합쳐 ‘우리’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면서도 결국 “서로를 원수보다 더 미워하게”된다.

나는 이제 우리의 편먹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사탄을 멸하는 주의 십자군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했고 믿음도 타락했다고 생각했다. 나와 내 동무들은 눈빛을 잃어버린 나날이 되어갔다. 눈에 빛이 없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사는 게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랬다. 조금만 짜증이 나면 에이 쌍, 하고 짧게 씹어 뱉고 나서 상대를 죽여 버렸다.¹⁵⁾

학살에 대한 요한의 심정은 작품에 말미에 와서야 확실하게 밝혀진다. 요한은 학살 기간 도중에 이미 자신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고 믿음도 타락”했다는 것을 자각한다. 요한은 마을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하고 죽인 일이 사실 육하는 감정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반복되는 살인으로 기독교 청년단은 그들 자기 자신까지도 증오하기에 이른다. 한 편이었던 요한과 상호가 서로의

14) 황석영, 『손님』, 203면.

15) 황석영, 『손님』, 246면.

가족을 몰살하는 장면은 선악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적에 대한 증오심의 정당화 과정이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과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손님』보다 6년 뒤에 발표된 바리데기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현재에도 존재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손님』이 집단 내부의 선/악 이분법에 의한 환상의 프레임을 보여준다면, 『바리데기』는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법적 양상에 주목한다. 바리는 남한과 북한이 외세 때문에 분열했다는 믿음처럼, 다른 제3세계 문제들 또한 제국주의 국가를 그들의 불행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도 고향에서 자랄 때에 남선과 북선이 서로 사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언제나 개와 고양이처럼 싸웠다고 얘기를 들었고 어른들은 그제 코쟁이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알리네 가족 어른들도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파키스탄과 인도로 갈라져 오랫동안 싸워왔고 인도가 점령한 잠무카슈미르에서는 지금도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인다면서 이렇게 된 것이 원래 영국놈들 때문이라고 했다.¹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가 이들의 의견을 “얘기를 들었다”와 같은 간접 서술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발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리는 모든 종류의 이분법에 의문을 품는다. 바리의 의문은 미국에서 9.11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영국 내 이슬람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감시와 폭력 상화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바리의 남편 알리는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폭력주의자이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영국 시민들은 “모스크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거나 히잡을 쓴 여자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이슬람을 믿는 이들 집에 뽀칠 낙서”(228)를 자행한다.

바리에게 너와 나, 우리와 너희, 시민과 미등록 거주민의 경계는 인간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구분일 뿐이다. 디아스포라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나 속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디아스포라에게 너와 나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바리데기』는 슬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16) 황석영, 『바리데기』, 210면.

내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결과적으로 '악'이며 디아스포라 개개인이 곧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지양한다. 바리데기 신화에서 바리 공주가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큰 만신 바리”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은 고통스러운 과거, 혹은 현재를 피하거나 패배주의에 져어들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힘센 자의 교만과 힘없는 자의 절망이 이루어낸 지옥이다.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거다.¹⁷⁾

위의 제시문에서 압둘은 바리가 겪는 부조리한 고통의 원인으로 '어떤 실재'를 가정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바리의 고통은 피해의식이나 분노로 전환되지 않는다. 압둘은 바리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역사의 주체로 재탄생한다. 버려진 존재인 바리공주만이 온 세상을 다 가진 오구대왕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영국의 부유한 시민인 에밀리 부인의 상처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바리를 통해 이 소설은 의식적으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도식적 대립구도를 피하고 있다. 이 소설의 관심은 '비판받아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세기에서 인간이 겪는 내적 고통이다.

몇 번이고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지 묻는 바리는 딸의 죽음 앞에서 주저앉는다.

상 나쁜 년, 널 죽여버릴 거야.

내 가슴속에 감추고 있던 것을 상이 건드렸을 뿐, 그것은 먼길을 거쳐오는 동안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한이었음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된다.¹⁸⁾

압둘은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상에서 이미 지옥을 겪는”다고 말한

17) 황순원, 『바리데기』, 290면.

18) 황순원, 『바리데기』, 262면.

다. 그는 상에 대한 바리의 미움이 바로 바리 자신이 지은 지옥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풀려나는 열쇠는 바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바리는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간 뒤에야 자신이 자기 앞가림에 지쳐서 상을 한 번 찾아가본 적도 없었고, 그녀를 도울 생각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잘못된 게 뭔데?”라고 묻던 바리는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나 세상 사람들이 “가없다”고 고백한다. 바리와 압들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은 ‘나’와 ‘우리’만이 선하다는 절대적 믿음, 전쟁의 논리와 대조된다. 이 두 소설의 공감적 시선은 한국의 무속형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5. 소통과 치유로서의 말하기

『손님』과 『바리데기』에서 황석영은 한국의 무속(巫俗)을 소설에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한다. 『손님』의 각 장은 오구곳의 마당으로 처리되며, 『바리데기』에서는 황천무가의 불바다, 모래바다, 피바다, 공수 장면 등이 차용됐다.

『손님』에서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소설은 신천 대학살 당시에 살해당한 사람들, 살육한 사람들의 혼을 ‘귀신’의 형식으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하고, 그들의 넋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작품에서 서사의 열쇠를 주고 있는 요한과 순남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들은 나란히 윤행이 되어 살아있는 요섭의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산자에게 털어놓으면서 마침내 이승을 떠날 수 있다. 이는 마치 무속에서 망자가 대내림¹⁹⁾을 통해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서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저승으로

19) 무속에서는 대내림을 통해 죽음 이의 혼이 무당의 몸을 통해 들어온다고 믿는다. 무당은 죽은 이의 말을 그의 친지들에게 전한다.

떠나는 행위와 비슷하다.

『바리데기』에서 바리 또한 죽은 이들과 소통한다. 『바리데기』에서 꿈과 환상의 경계는 모호하며 꿈을 통해 소설의 시공간은 “서천의 끝”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소설의 말미에서 펼쳐지는 바리의 꿈에서 바리는 생명수를 찾아 죽은 할머니와 칠성이와 함께 서천을 여행한다. 이 장면에서는 황천무가의 불바다, 모래바다, 피바다, 공수 장면 등이 차용됐다. 그녀가 만나는 서천은 “맨 처음에는 불바다, 그 다음에 피바다, 마지막으로 기러기 깃털도 가라앉는 모래바다를 지나면 무쇠성”(266)이 나오는 무속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폭탄 터지는 굉음과 총 쏘는 소리와 총탄이 나는 소리, 비행기 헬리콥터 탱크와 장갑차가 날아다니고 달리고 구르며 쏘고 터지는 소리. 엄청난 무리의 군중이 내지르는 아우성과 여자와 아이들의 비명소리”(267)가 들리는 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바리는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영매의 무가를 부르고, 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 곱장떡을 나눠주며 그들을 위무하는 노래를 부른다.

두 작품의 주요 인물인 요섭과 바리는 작품에서 영매(靈媒)의 역할을 한다. 요섭이 혼령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천도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바리는 저승길에 올라 망자들의 세계로 뛰어들기도 하며 직접 망자들을 위로한다는 점에서 보다 완성된 의미의 영매이다.

앞서 말한 대로 두 작품은 무속의 구조, 그 중에서도 오구굿의 형식과 유사하다. 오구굿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도는 망자를 위한 굿이다. 오구굿에서 무당은 죽은 이의 넋을 잘 먹이고 노잣돈도 쥐어서 천도한다. 참관자들은 무당과 함께 모여 굿을 즐기며 잡신을 맞는다. 가장 버림받은 넋, 배고픈 넋, 추운 넋들이 한데 모여 앉아 놀기 시작할 때쯤 무당은 무가(巫歌)를 부른다. 무가는 무조신의 수난기이다. 무가의 주인공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승과 저승을 돌며 수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무조신에 오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당에 의해 불러질 때에서야 떠도는 넋들이 마음을 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어왔다.

산자들의 보신을 위한 제수굿과 다르게 오구굿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곳이었다. 보통 영매의 역할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담당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권위가 없었으며, 가장 상처받은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다. 『손님』의 요섭은 대규모 학살사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고, 바리는 미등록 이민자의 신분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민자들이고, 이미 한반도 내에서 '우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민국에서도 불완전하게 정착한 이방인들이다. 그런 인물들이 치유와 소통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무당이 영적 치유사의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 두 작품은 매스미디어처럼 권력을 가진 언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속적 이야기의 형식을 차용한다. 이 작품은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덕목의 한계를 신화라는 비합리성을 이용하여 보완한다. 『바리데기』에서 바리의 할머니는 힘든 고비마다 바리데기 신화를 바리에게 들려준다. 그녀는 바리가 온갖 고난을 겪고 나서 무조신에 오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바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딸을 잃고 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바리는 꿈속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는 사람들이 탄 배를 만난다. 그리고 딸의 영혼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접신(接神)을 체험한다.

우리 엄마가 묶여 있어. 엄마가 미움에서 풀려나면 너희두 풀릴 거야.
배가 엇갈려 지나가면서 차츰 멀어져간다. 나는 스스로 계집아이가 되어 흐느낀다.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나는 그제야 죽은 홀리야 순이가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항해했다는 걸 느낀다. 내 마음속의 형체 없는 희끄무레한 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²⁰⁾

오구곳에서 접신은 망자의 슬픔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 장면에서 바리는 영매이기도 하지만, 상처받은 낮이기도

20) 황순원, 『바리데기』, 284면.

하다. 바리는 죽은 딸의 영을 받으며 제 속의 서러움을 풀어놓고 증오의 마음 또한 함께 보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바리는 결국 생명수를 구하지 못한다. 이는 설화적 세계에 속한 무속과 타락한 세계의 형식인 소설의 변별점이다.

『손님』과 『바리데기』는 디아스포라 주체가 치유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황석영의 다른 작품들과 그 양상을 달리한다. 세계의 부조리를 진단하고 비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디아스포라 개개인을 역사의 피해자라는 수동적인 위치로 고정화하지 않고, 그러한 역사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개인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 결론

이 글은 황석영의 소설 『손님』과 『바리데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양상을 다루었다. 이 글은 2000년대에 발표한 황석영의 장편소설들이 그의 전작들과 변별되며, 이 작품들이 황석영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없는 의미의 잉여가 있다고 판단하고 두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의 의미 범위를 규정했다. 디아스포라라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산을 강요당한다. 디아스포라 문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정적 산물이다. 그러나 이 글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단순히 '거대 억압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도식화하지 않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의 구체적인 고민과 이방인으로서의 비판적 관점과 그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했다.

『바리데기』의 바리는 탈북자 난민의 신분으로 불안정한 이동을 하는 디아스포라이다. 반면 『손님』의 요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사회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나 과거의 기억과 죄의식으로 자신의 본국에 정신적으로 구속되는 디아스포라다.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데 골몰한다.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폐기하는 주류 사회의 습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바리데기』는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분단의 문제를 색다른 각도에서 고찰한다. 바리에게 분단문제는 그토록 풍요로운 세계의 지척에서 굶어죽고 고통 받는 북한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철저한 망각이다. 바리는 그 망각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대기를 기술한다. 그녀의 기억은 망각에 대한 저항이고, 기억을 통한 일세계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손님』은 왜곡되고 은폐된 기억의 문제를 디아스포라의 시선을 통해 제기한다.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요섭은 학살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희생된 사람들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당시의 사건을 추적할 수 있다. 그는 반공사상에 갇힌 형의 태도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지만, 사건을 왜곡해서 새로운 권력 체제를 만들어내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거리를 취한다.

『손님』과 『바리데기』에서 비극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분법적 선악개념이다. 이 두 작품이 문제시하는 것은 ‘의도된 악’이 아니라, ‘절대 선(善)에 대한 믿음’에 있다. 『손님』은 기독교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상호 보복을 그린다. 『손님』은 절대 악과 절대 선에 대한 믿음과 상대에 대한 심판이 결국 심판을 행하는 개개인을 황폐하게 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한편 『바리데기』는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법적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리는 이러한 이분법에 가담하지 않고 의문을 품는다. 바리에게 너와 나, 우리와 너희, 시민과 미등록 거주민의 경계는 인간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구분일 뿐이다. 『바리데기』는 슬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결과적으로 ‘악’이며 디아스포라 개개인이 곧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지양한다. 『바리데기』의 바리와 압둘 할아버지는 세계의 모순과 폭력을 누구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 모든 원인을 하나의 객체로 실재화하지 않는다. 바리와 압둘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하는 것은 ‘나’와 ‘우리’만이 선하다는 절대적 믿음, 전쟁의 논리와 대조된다.

『손님』과 『바리데기』에서 황석영은 한국의 무속(巫俗)을 소설에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한다. 두 작품의 주요 인물인 요섭과 바리는 작품에서 영매(靈媒)의 역할을 한다. 요섭이 혼령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천도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바리는 저승길에 올라 망자들의 세계로 뛰어들기도 하며 직접 망자들을 위로한다는 점에서 보다 완성된 의미의 영매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민자들이고, 이미 한반도 내에서 ‘우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렇다고 이민국에서도 불완전하게 정착한 이방인들이다. 그런 인물들이 치유와 소통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무당이 영적 치유사의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 두 작품은 매스미디어처럼 권력을 가진 언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속적 이야기의 형식을 차용한다. 이 작품은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덕목의 한계를 신화라는 비합리성을 이용하여 보완한다.

『손님』과 『바리데기』는 디아스포라 주체가 치유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황석영의 다른 작품들과 그 양상을 달리한다. 세계의 부조리를 진단하고 비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디아스포라 개개인을 역사의 피해자라는 수동적인 위치로 고정화하지 않고, 그러한 역사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개인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황석영, 디아스포라, 손님, 바리데기, 탈식민주의, 탈북소설

〈참고문헌〉

1. 단행본

구재진, 『한국문학의 탈식민과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1.

서경식,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황석영, 『손님』, 창비, 2001.

황석영, 『바리테기』, 창비, 2007.

2. 학위논문

강용훈, 「황석영 소설의 낭만적 성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1-10면.

김지운, 「황석영 소설의 공간적 배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1-8면.

백지은, 「한국 현대소설의 문체 연구 - 김승옥, 이청준, 서정인, 황석영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92-152면.

3. 소논문·평론

강정구, 「종교문화적인 갈등으로 바라본 신천학살사건」, 『외국문학연구』 4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9-28면.

김재용, 「냉전적 분단구조 해체의 소설적 탐구 - 황석영의 〈손님〉」, 『실천문학』 63호, 실천문학사, 2001, 322-332면.

손종업, 「바리의 귀환」, 『실천문학』 88호, 실천문학사, 2007, 333-338면.

양진오, 「특집1 최근 우리 소설의 성과들 - 한반도의 민족문제에 관한 장기지속적인 성찰 - 황석영 〈손님〉」, 『실천문학』 67호, 실천문학사, 2002, 150-162면.

양진오,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 『한민족어문학』 51호, 한민족어문학회, 2007, 71-94면.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10권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1, 235-255면.

윤인진,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 판』 18호, 열림원, 2006, 160면.

- 이명원, 「약속 없는 시대의 최저낙원 -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대하여」, 『문화과학』 52호, 문화과학사, 2007, 303-318면.
- 이정희, 「유령을 재울 것인가 기억에 몸을 입힐 것인가 - <손님>의 민중신학적 읽기」, 『당대비평』 17호, 생각의 나무(당대), 2001, 382-392면.
- 정은경,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제2차 국제학술대회, 2007, 197-198면.
- 정홍섭,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와 신화화된 이야기 - 황석영의 <손님>과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실천문학』 71호, 실천문학사, 2003, 321-332면.

[Abstract]

Diaspora appeared in Seokyoung Hwang's Novels

Choi, Eun-young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aspect of diaspora which is appeared in Seokyoung Hwang's novels, especially, <Visitor> and <Baridegi>. This thesis points out that the two novels are different from other novels written by Hwa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t considers the aspect of diaspora appeared in <Visitor> and <Baridegi>. Then, What is diaspora?

This thesis shows that diaspora is not only in a specific country or ethnic group, but also over the world in 21th century. They are forced to move to other countries without their will. Moreover, diaspora is a negative result of the neo-liberalism and the globalism. However, this thesis does not make diaspora identity simply 'the victim of a super suppression', and analyzes what they agonize about concretely, how they think the world and themselves differently, how they react actively.

Bari, who is the main character in <Baridegi> is a diaspora, a North Korean refugee moving unstabled. On the other hand, Yoseop, who is the main character in <Visitor> apparently looks stable in USA, but at the same time he is a different kind of diaspora being restrained by his memory of Korea war. Bari and Yoseop, both of them try to drag a memory to the present. They critically think that the society easily throw away important memories.

The one of the main themes of two novels is a dichotomy between good and evil. They criticize not a 'evil', but the belief in 'absolute good'. <Visitor> shows revenges between a christian group and a communist group. This novel points out that the belief in 'absolute good' and revenges ruin the each of human beings. Meanwhile, <Baridegi> shows aspect of a dichotomy between

a western world and non western world, but Barry,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does not join the way of thinking, and asking for herself. For her, dichotomy just makes oppressions stronger. She criticizes the dichotomy that globalism is evil and diaspora is good.

Seokyoung Hwang experiments a way of writing in borrowing Korean Shamanism in <Baridegi>, <Visitor>. The main characters Bari and Yoseop work as a shaman. They are minoriti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the outside of Korea, and never accepted in a main world like a shaman in a Korean history. As a minority, they become a subject of healing and communicating as if the shamans unacceptable in a Korea history. In these two novels, Korean shamanism is a opposite to Mass media which has a strong power. While Mass media delete important memories, Shamans try to make it be.

These two novel are different from other novels written by Seokyoung Hwang that diaspora becomes a subject of healing. In his previous work, the characters shows a contradiction of the world, but not a subject of healing others, but these two novels do not make characters victims in history, do make them a very strong human being to oppose that history.

【Key words】 : Seokyoung Hwang, Baridegi, Visitor, Diaspora, North Korean refugee, post-colonialism

최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131-78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50 시영아파트 610-1002

전자우편 : euni153@naver.com

<p>이 논문은 2012년 1월 2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3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p>
--